

KDI 정원의 팔정도 석비

어마 아델만(Irma Adelman)

〈노스웨스턴대학교 교수·

IBRD개발연구센터 고문〉

한국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도와 주기 위해 내가 처음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1965년경에는 현대경제학을 공부한 경제학 박사가 한국에는 6명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5개년 계획 작성이 끝날 때까지 나는 한국인 경제학자들과 계획 입안자들로부터 한국의 실상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늘 불안했다.

당시 경제기획원 2인자인 김학렬 차관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나는 한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특정 요소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는 '사실상 모든 것이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제반 국면에 대해 여러 경제학자들에게 연구를 부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학자들을 얼마든지 참여시키겠다'고 대답했는데, 이 대답은 정부와 학계의 관계를 보여 주는 대목이었

다. 결국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기획원 관료들과 학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미국인 자문가들과의 합작 노력으로 설계될 수 있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한국인 학자들과 정부 관료들이 경제상태를 평가하고 변화를 모니터하며 적절한 정책을 권고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많은 염려를 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외부 상황 변화와 경제의 진전에 따라 수정될 수 있도록 신중적이어야 했다.

나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설계 당시인 1965,66년에 USAID/K를 자주 방문했는데 USAID의 2인자였던 톰 올름스티드(Tom Olmstead)와 데이빗 콜(David Cole), 그리고 당시 USAID/K에서 한국인 경제학자로 일하던 김만제 박사와 함께 정책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토의를 했었다. 그때 USAID/K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나와 김만제 박사는 한국의 정책 입안과정과 미국 정부는 별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정확한 연도와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 나는 당시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으로 있던 이희일 씨, 김만제 씨와 함께 워싱턴에서 만나 뉴욕의 포드 재단 본부로 갔다. 그리고 포드 재단이 1950년대 초 이후 계속 재정 지원을 해 주던 파키스탄개발연구소와 비슷한 연구기관을 한국에도 세우는 데 도와 달라는 요청을 했었다. 그들은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더니 한국은 아직 그러한 연구소를 만들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결론지었다.

내가 보기에 이때 포드 재단이 거절한 이유는 후원을 받아야 할 적절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한국에는 없다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포드 재단은 자기들의 지원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후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찾고 있었으면서도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또 하나 KDI와 나의 관계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1960년대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로 직접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었다. 언제나 도쿄에

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서울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KDI 연구소 건물이 완성되기 직전 나는 도쿄의 한 호텔(애석하게도 지금은 헐린 옛 임페리얼 호텔인 듯하다)에서 비행시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잠옷 차림인 나는 영문으로 된 불교서적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다. 그중 한 장(章)에는 세상을 보고 배우며, 생각하고 깨달으며 행동하는 원리에 대한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나는 그 말씀이 오랜 옛날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이고, 그리고 현대의 학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탄해 마지않았다.

지금은 그 자세한 내용을 기억할 수 없지만 이 부처님 말씀의 의미는 가설로서의 이론적 개념과 경험적 연구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반복 개념과 같은 것이어서, 갈릴레오 이후 자연과학에는 적용되어 온 연구방법이지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제학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나는 한국의 고찰(古刹)을 관광할 때 아름다운 석등(石燈)을 발견했고, 또 어떤 절에서는 도쿄의 호텔에서 읽었던 내용의 문구가 새겨진 비석도 보았다. 나는 김만제 원장에게 이 불교의 글귀를 새겨 넣은 석등을 KDI에 기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적절한 선물이 될 것 같다고 동의하면서 석등의 제작과 조각을 의뢰해 주었다.

내가 기증한 그 석등은 지금도 KDI 부속건물 입구에 서 있다.

편집자주 - 아델만 박사는 경상남도 양산군 소재 통도사에 들렀을 때 8각 석비에 새겨진 '팔정도'(八正道)의 뜻을 수행한 송병락 수석연구원에게 물었다. 설명을 듣고 돌아온 아델만 박사는 팔정도의 의미는 학자들의 바람직한 연구 자세와도 일치한다며 KDI 정원에 이와 똑같은 석비를 세워 그곳에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이를 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자고 김만제 원장에게 제의했다. 이렇게 하여 1972년 '正見', '正思', '正語', '正業', '正命', '正進', '正念', '正定'의 팔정도가 새겨진 석비가 아델만 박사의 기증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 석비는 지금도 KDI 정원에 서 있다.